

전북도청 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

□ 수 신 : 제 22회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 발 신 : 전북도청 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

□ 일 시 : 2017년 11월 9일

○ 귀 조직위원회에 인사를 드립니다.

○ 전북도청 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는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근절과 시민사회단체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대책회의입니다.

○ 2016년 12월에 발생한 전북도청 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은 제21회 전주인권영화제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모텔로 데리고 가서 발생한 성폭력사건입니다. 또한 가해자는 인권영역 등 사회단체의 활동가로 활동했던 경력이 무색하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사건입니다.

○ 한편으로 본 대책회의는 이 사건과 관련되어 제21회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 입장이나 대책에 대해서 공표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의 경중을 떠나 주최자는 해당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만 합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제22회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이하 영화제 조직위)>가 입장을 밝혀야만 합니다.

○ 이에 본 대책위는 ‘전북도청 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과 관련되어 <제22회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첨부하오니 답변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아래 메일 혹은 팩스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공개질의서 1부
- 기 한 : 2017년 11월 12일 오후6시까지
- 담 당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메일 svpcc@hanmail.net, 팩스 063-236-0153)

※ **대책회의 참여 단체** :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군산은혜의 쉼터, 익산성폭력상담소, 남원YWCA가정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정읍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디딤터,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익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익산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의 쉼터, 전북이주여성쉼터, 군산 성가정의 집, 군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전주가정폭력상담소, 나누리콜센터전북전주지역,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아시아이주여성쉼터, 남원 YWCA 사랑의 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정읍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김제성폭력상담소, 전북여성폭력상담소, 시설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노동당 전북도당, 녹색당 전북도당, 정의당전북도당 (총 52개 기관)

공 개 질 의 서

● 제22회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이하 22회 영화제 조직위)의 전북도청 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에 대한 입장

지난 12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영화제 제21회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이하 21회 영화제 조직위) 명의의 입장이나 대책 등은 발표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21회 영화제의 자원봉사자였으며, 가해자는 영화제 예산을 지원하는 전북도청의 인권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1회 영화제 조직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 책임의 경중을 떠나 주최자로서 입장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것이 진행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은 22회 영화제 조직위에 있을 것입니다. 이에 22회 영화제 조직위의 전북도청 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에 대한 입장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 영화제 조직위의 성폭력사건 재발방지 대책

21회 영화제 기간에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은 인권전문가로 일컬어지던 가해자에 의해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 이후 1년여가 되어감에도 2차 가해 등 추가적인 가해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의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최 측이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인식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22회 영화제 조직위의 대책과 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 영화제 조직위의 ‘인권’ 영화제의 목표와 지향

위와 같은 입장과 대책 등은 본 대책회의가 질의하기 전에 이미 논의되고 준비되어 지역사회에 공표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과정이 부재했다면, 22회 영화제 조직위가 지향하는 ‘인권’영화제가 어떤 목표와 지향을 위한 영화제인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2017. 11. 9.

전북도청 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